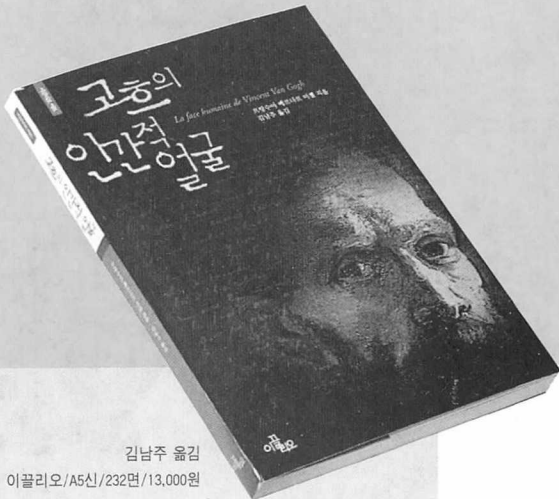


## ‘고흐 신화’의 실제 밝힌 평전

프랑스어 베르나르 미셸의 《고흐의 인간적 얼굴》을 읽고

이가림 | 시인·인하대 불문과 교수



김남주 옮김  
이폴리오/A5신/232면/13,000원

내가 파리에서 34km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 오베르 쉬르 와즈를 세번이나 찾아가는 것은 순전히 ‘태양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비극적인 전설이 숨쉬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1985년 여름 친구의 안내로 처음 그곳에 당도했던 날의 눈부신 정오, 고흐가 자살하기 전 하루에 3프랑 50상 팀씩 내며 살았던 여인숙 지붕 밑 방에 들어섰던 순간의 기억이 지금 이 글을 쓰려고 하니 새삼 찌릿하게 떠오른다. 벽에는 1890년 7월에서 시작하는 19세기 말엽의 한장 짜리 달력이 걸려 있고 바닥에는 매트리스가 없는 철제 침대가 하나 옛날 그대로 보존돼 있었는데, 난 ‘앉지 마세요’라는 팻말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앉아 봤던가...

### 긴장감 넘치는 문체와 전개 돋보여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한 글은 그가 죽은 1890년부터 1942년까지 출간된 연구서만 헤아려 봐도 777편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42년 이후 현재까지 나온 저작물을 모두 헤아려 본다면 적어도 3천여편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나온 프랑스어 베르나르 미셸의 《고흐의 인간적 얼굴》은 기존의 연구서와 평전 및 소설과는 달리 광기 어린 예술가의 비극적 드라마의 더계를 예리하게 벗겨낸 점에서 우리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책의 서두에서 추리소설을 방불케 하는 필치로 저 유명한 ‘귀 자르기 사건’에 얽힌 이야기의 전말을 생생하게 풀어 나

가는 숨씨는 마치 드라마 작가의 긴장감 넘치는 문체와 전개를 보는 듯하다. 특히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그린 뒤 1890년 7월 27일 오베르 성에 올라가 끝없이 펼쳐진 밀밭을 바라보면서 가슴에다 권총을 쏘 생을 마감한 고흐 신화의 실제에 대한 검증은 가히 명탐정의 치밀한 탐문 수사를 뺄진다.

프랑스어 베르나르 미셸은 수많은 미술 평론가, 작가, 정신과 의사들이 화가에게 자신들의 환상, 자신들의 환각을 투사함으로써 ‘귀 자르기 사건’ 같은 비극을 정사가 아닌 야사, 즉 상투적이고 열기적인 하나의 멜로드라마로 만들어 버렸다고 항의한다. 그는 이런 증상모략에 대항해 진정한 고흐의 얼굴을 정확하게 포착하려는 것이 그의 목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고흐와 관련된 증인의 말(예컨대 폴 고갱, 신문기사, 경찰조사,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같은 것들이 결코 액면 그대로 믿을 만한 것이 못되며, 허구를 조작해내는 위협스런 것임을 날날이 규명해 보여 준다. 고흐의 우울증세가 스트린드베리의 만성적 착란과는 다른 압생트의 나쁜 영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셸은 앙토넝 아르토의 《반 고흐, 사회로 인해 자살한 사람》이라는 도전적인 저서를 고흐 이해의 새 차원을 개척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어떤 의사나 정신분석가들보다 더 ‘광기의 편’에 서서

신빙성 없는 정신의학에 대한 통렬한 반박을 실감나게 쏟아 놓고 있기 때문이다.

### “고흐는 미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단언한다. “놀랍게도 빈센트 반 고흐가 ‘미쳤다는 사실’은 부당하게 덮여 씌워진 것이고 그 우울증 역시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 광기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알리바이로써 사람을 내치는 것이, 우울증으로 인한 그의 고통을 귀담아 듣고 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일보다 분명 쉬웠을 것이다. (...) 그는 미치광이도 저주받은 자도 아니고 다만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다.”

나 자신이 지난 해 출간한 《미술과 문학의 만남》(월간미술)의 <예술의 반란, 이성에 대한 광기의 불꽃>편에서 고흐와 아르토를 연결시켜 다룬 바 있는데, 프랑스어 베르나르 미셸이 특히 아르토의 고흐론을 입론의 중요한 뼈대로 채용하고 있어 매우 반가웠다. 19세기 사회가 ‘왕따’ 시킨 고흐라는 천재화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한 것이야말로 높이 평가해야 할 그의 공적이다.●